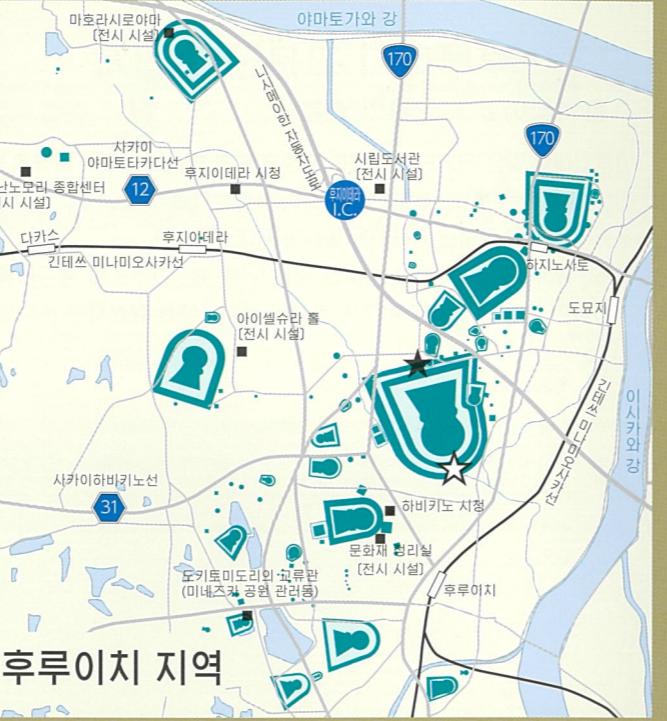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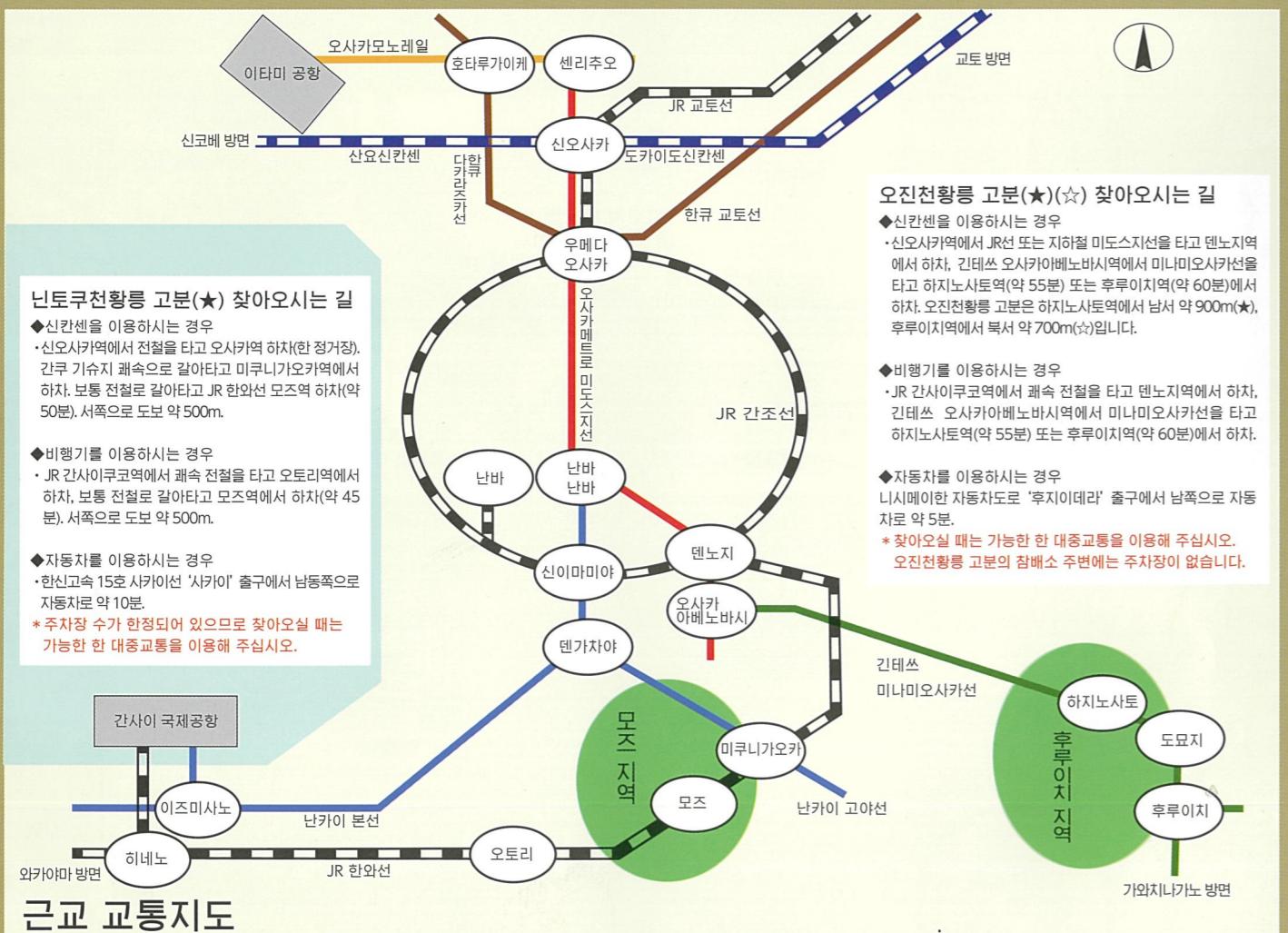




모즈 지역



후루이치 지역



- 발행권 여부**
- 쓰레기는 각자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 교통규칙을 지키며 둘러봅시다.
  - 주민이나 다른 방문객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매너를 지킵시다.
- 모든 고분은 외부에서의 견학은 가능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고분도 있습니다.
  - 참배소에 동물(맹도견, 개조견을 제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 참배소는 금연입니다.



편집  
발행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세계유산 보존활용회의(오사카부, 사카이시, 하비키노시, 후지이데라시)  
(우)559-8555 오사카부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14-16 오사카부 사카시마 청사 37층  
오사카부 부민문화부 도시매력창조국 매력만들기추진과  
전화 06-6210-9742 팩스 06-6210-9316  
E-mail: info@mozu-furuichi.jp URL http://www.mozu-furuichi.jp/en/  
2020년 1월



표지 사진 / 모즈 지역

# 세계유산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고대 일본의 분묘군—



世界遺産 World Heritage Site of Osaka  
**百舌鳥・古市古墳群**  
Mozu-Furuichi Kofu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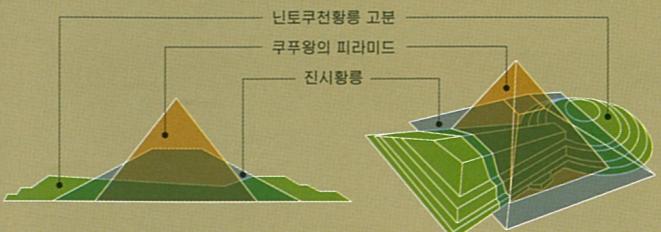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ozu-Furuichi Kofun Group:  
Mounded Tombs of Ancient Japan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이란

세계유산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고분시대의 전성기(4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에 걸쳐 축조된 고대 일본 열도 왕들의 묘군입니다. 고대 일본 정치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 대륙으로 향하는 항로의 출발점이었던 오사카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자산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열쇠 구멍 형태로 가장 큰 것은 길이가 대략 500m나 되는 거대한 고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크고 작은 분묘가 밀집하여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많은 분묘의 분구가 관이나 석실에 성토를 하고 돌만을 쌓아 만든 것에 비해 고분의 분구는 장승 의례의 무대로서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적용, 하니와 등의 토제품으로 장식을 꾸민 건축적인 걸작이었습니다.



	닛토쿠천황릉 고분	쿠푸왕의 피라미드	진시황릉
전장	약 486m	약 230m	약 350m
높이	약 35.8m	약 146m	약 76m
체적	약 140만m³	약 260만m³	약 300만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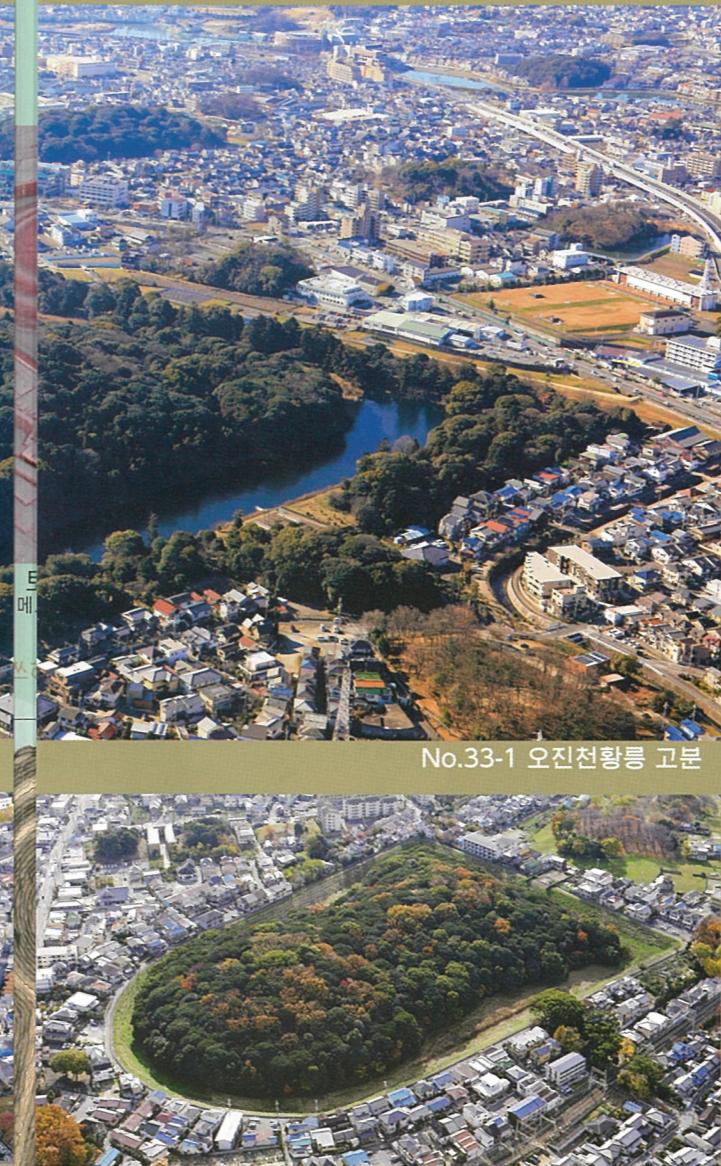
## 고분이란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 사이에 일본 열도에서 활발하게 축조된 흙을 높이 쌓은 분구가 있는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분에는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매장되었습니다.

분구는 주위의 흙을 파내고 쌓아올린 후 그 경사면에 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 파인 부분은 주위보다 낮은 해자가 되었습니다.

고분의 형태는 위에서 보면 열쇠 구멍 형태를 한 전방후원분, 가리비와 같은 모양의 가리비형 고분, 둠형태의 원분, 사각형의 방분 등 종류도 많고 크기도 10m 정도의 작은 것부터 400m가 넘는 거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고분이 활발하게 축조된 이 시대는 '고분시대'라고 불리고 이 시대 이후 일본 열도에서 고대 왕권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 모즈 지역 —사카이시—

모즈 지역은 사카이 시내의 동서・남북 약 4km의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구성 자산으로 23기 21건의 고분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는 세계 최대급의 분묘・닛토쿠천황릉 고분(일본 제1위)과 리추천황릉 고분(동 3위)을 비롯한 거대한 전방후원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후루이치 지역 —하비키노시・후지이데라시—

후루이치 지역은 오사카부 동남부, 후지이데라시에서 하비키노시에 걸쳐 동서・남북 각 4km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오진천황릉 고분(일본 제2위)을 비롯한 26기 24건의 고분이 세계유산 구성 자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

## 평가 기준(iii)

고분은 일본 열도 각지에 16만 기나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본 고대 고분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물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입니다. 45건의 구성 자산은 이 시대의 사회정치적 구조, 사회계층간 차이 및 고도로 세련된 장송 체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평가 기준(iv)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고대 동아시아의 분묘 축조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고분 및 고분이 가진 유형 속성인 하니와와 해자, 이음돌을 갖춘 기하학적인 구분쌓기를 한 분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대에 사회 계층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 개성 넘치는 고분이 가진 3가지 속성

### 속성 a) 밀집해있는 다양한 고분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2개 지역에 밀집해있는 고분은 다양한 고분 형태와 20m 정도부터 400m 이상까지 규모도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같은 지역, 같은 시대에 다양한 분묘가 축조된 일본 열도 고분의 특징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 모즈 지역

- 전방후원분
- 가리비형 고분
- 원분
- 방분

\*회색 표시 고분은 구성 자산이 아닙니다.



### 후루이치 지역



### 속성 b) 4가지 표준화된 형식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고분에는 전방후원분, 가리비형 고분, 원분, 방분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형식은 일본 각지 고분의 규범으로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본 자산은 고분의 설계와 축조 기술을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 닛토쿠천황릉 고분 (No. 2-1)



전방후원분

##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입지

### —동아시아와의 교류의 관문—

고훈시대와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는 중국 왕조 분열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서는 왜가 성장하고 여러 왕권이 항쟁과 연합을 거듭하는 동란의 시대였습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이 위치한 오사카 평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여러 세력과의 교류의 창구이며 고대 일본의 정치・문화 중심지의 하나였습니다.



## 고분 축조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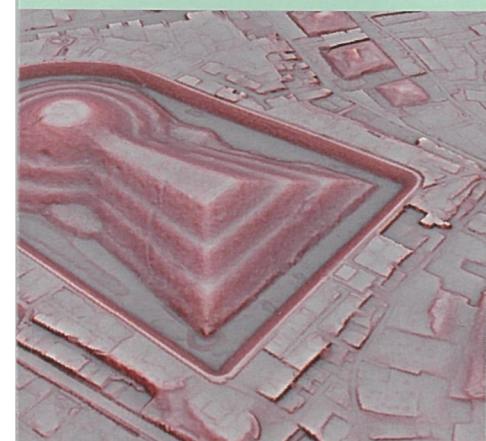
### —고대 왕권의 형성과 발전—

수령 채집을 생업으로 한 조선시대 및 일본 열도에 벼농사가 전파된 애요이시대를 이은 고훈시대는 열도 각지에서 성장한 여러 세력들이 정치 연합을 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는 대륙으로부터 통치 시스템이나 새로운 종교(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입되기 직전의 시기로 분묘에 따라 권력을 상징한 독특한 역사적 단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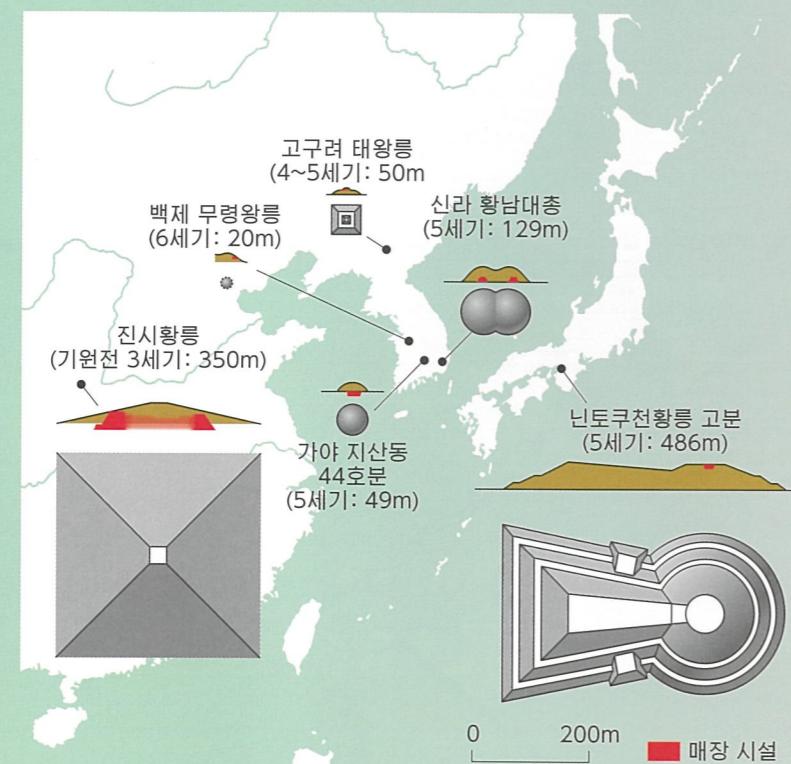
## 속성 c) 치밀하고 독특한 장송 의례의 증거

각 고분의 매장 시설은 분구 꼭대기에서 깊게 파내려 간 묘혈 안에 설치되어 있고 분구 윗면 곳곳에 하니와와 이음돌이 놓여 있습니다. 분구 위에서 장송 의례가 거행되고 그 무대로서 분구가 장식된 것은 일본 열도 고분의 큰 특징이며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그것을 명료하게 전하는 사례입니다.



토제 구조물로서의 고분  
제노미코토릉 고분 / 항공 측량에 의한 입체지도

하메노미코토릉 고분  
(No. 26)



고보야마 고분  
(No. 20)

### 동아시아 분묘의 주요 형태

동아시아에서는 원분이나 방분이 일반적인 형태인 데 비해 일본 열도의 전방후원분은 특징적인 열쇠 구멍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쓰카 고분  
(No.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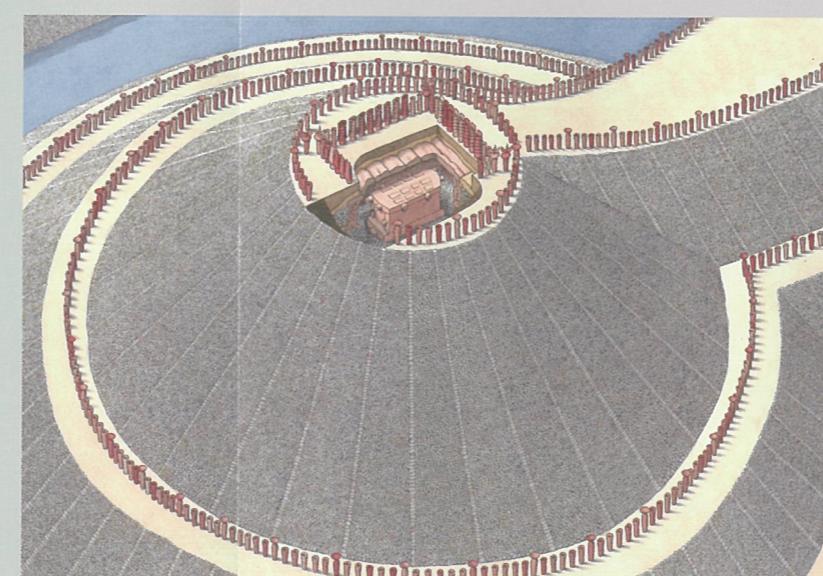
하타조카 고분  
(No. 13)

겐에몬야마 고분 스케타야마 고분  
(No. 4) (No. 28)

가리비형 고분

원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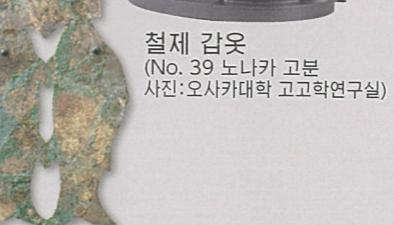
방분



출토된 거대한 석관  
(No. 22 쓰도시로야마 고분)



대량으로 출토된 갑옷  
(No. 39 노나카 고분 / 사진: 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



동아시아의 교류를 말해주는 금속제품  
(No. 44 미네가즈카 고분)



투구형 하니와  
(No. 18 이타스케 고분)



분구를 장식하는 원통 하니와  
(No. 20 고보야마 고분)



고대인의 생사관을 엿볼 수 있는 물새형  
하니와  
(No. 22 쓰도시로야마 고분)



신사 건축의 원류로 추측되는 집모양 하니와  
(No. 20 고보야마 고분 / 사진: 궁내청)